

대학생의 학습전략과 부정적 정서, 학업적·사회적 적응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

Effects of Learning Strategies, Negative Affect, and Academic·Social Adapt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박완성*, 정구철**

삼육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Wan-Sung Park(pwansung@syu.ac.kr)*, Goo-Churl Jeong(gcjeong@syu.ac.kr)**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학습전략과 부정적 정서, 대학생활적응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1개 대학교의 신입생 654명을 대상으로 2월에 학습전략과 부정적 정서를 조사하였으며, 3개월 후 학기 말에 학업적·사회적 적응과 성적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상호작용 효과의 사후분석으로 단순기울기 검증을 수행한 후 도식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학습전략과 학업적 적응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 정서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여자에게서만 유의하였고, 사회적 적응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남자에게서 유의하게 나타나 성별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에서의 학업적 성취에 학습전략과 정서 및 적응에 대한 시사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학습전략 | 대학생활적응 | 성적 | 정서 |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which impacts learning strategy, negative emotions, and influence that university life adjustment of undergraduates has on academic achievement. Therefore, this survey was conducted on learning strategy and negative emotion in February, targeting 654 freshmen of a university in Seoul on their academic and social adaptation and grades which has been measured and analyzed three months later at the end of the term. The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genders was analyzed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and diagram was presented after conducting the simple gradient verification as a post analysis on interactive effect. As a result of analysis, although learning strategy and academic adaptation was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affecting grades regardless of gender, the impact of negative emotions on academic achievement were significant only to females, and the impact of social adapt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was significant only to males, which enabled the researchers to confirm the regulation effects on different genders. The implications and proposal for a follow-up study about learning strategy, emotion, and adaptat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ed in the discussion of academic achievement in university.

■ keyword : | Learning Strategy | Adaptation | Academic Achievement | Affect |

* 본 연구는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3년 12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1월 15일

수정일자 : 2014년 01월 13일

교신저자 : 정구철, e-mail : gcjeong@sy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학습(learning)은 변화를 뜻한다. 학습이란 일정 장면에서 반복된 경험에 의해 일어나는 유기체의 행동 또는 행동 잠재력에 있어 어떤 비교적 영속적인 변화이다[1]. 즉 학습이란 경험에 의한 행동 및 정신적 연합에 있어 비교적 영속적인 변화이다. 청소년기에 있어 학습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학업성취는 인생의 발달과업을 구성하며, 둘째,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셋째, 진로 및 진학의 영향 요소이며,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수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학생들에게 ‘공부’가 심하게 강조되고 학교 성적이 학생에 대한 전인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학교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더 나아가 학생들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시각이 짙게 된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고교졸업과 함께 취업을 하거나 대학에 진학하여 다양한 역할실험을 하고 사회인으로서 준비 작업을 하게 된다. 특히 대학은 고등학교의 연장선에 있는 학교라는 점에서는 동일해 보이지만, 고등학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이며, 대학 신입생들은 대학이 제공하거나 혹은 스스로 대학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많은 과업들을 통해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2]. 이러한 대학 신입생들의 적응에 대해 이해리(2009)는 학업성취도가 대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 이 연구에서는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MMPI 추정치를 심리정서적 적응의 지표로, 4학기 동안의 누적 평점의 평균을 학업적 적응의 지표로, 그리고 재학 및 학업중단 여부를 대학환경에 대한 적응의 지표로 삼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재학이나 학업중단의 비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누적 평점 평균을 비교한 학업적 적응과 MMPI 척도 및 대학생활 적응 척도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학점을 받은 학생일수록,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이 낮을수록 대학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학교의 적응과 정서 및 성적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혜순과

옥지원(2012)은 청소년들의 우울이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성취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기통제가 결여된 무계획적인 충동성어도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다고 밝혔으며[23], 문영주와 좌현숙(2008)은 청소년들의 우울 및 불안, 자살생각으로 구성된 정신건강이 학업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여[24]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성적에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중요한 요인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접어든 대학 신입생들의 부정적 정서와 학교생활 적응은 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업성취도와 관련하여 학교생활 적응이나 부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자기조절학습전략이나 자기효능감과 같은 내적 자원이 학업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는데[4], 그 중 박동혁(2010)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성격적 특성, 정서적 특성, 동기적 특성, 학습전략의 4범주로 크게 분류하여, 정서와 더불어 학습전략의 중요성을 제안하고 있다[5]. 또한 학업문제 유형과 관련하여 황매향(2009)[6]은 ‘학업문제를 유형화하려는 노력은 학업성취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유형을 도출하고 그 유형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7]과 학생들이 호소하는 학업에서의 어려움과 관련된 공통점을 요약하여 문제를 제시하는 방식[8-10]으로 구분’하였다. 학생들이 호소하는 학업관련 문제에 대하여 홍경자 등(2002)은 인지적 문제, 정의적 문제, 관계의 문제 3가지로 구분(대분류)하고[3], 인지적 문제는 지적능력 부족의 문제와 학습전략의 문제로, 정의적 문제는 학습동기의 문제, 공부태도의 문제, 학습관련 스트레스와 시험불안으로, 관계의 문제는 관계관련 문제로 세분(중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학습전략의 문제는 집중력 부족, 공부 방법 문제, 노력은 했는데 성적이 안 오름으로 소분류 하였다.

한편 학습전략에 대하여 전명남(2003)의 연구[12]에서는 높은 학업성취 대학생은 낮은 학업성취 대학생에 비해 동기전략, 인지전략, 자원관리 전략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최상위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수행한 결

과에 따르면 계획, 시간관리, 철저한 수업시간에의 참여와 집중, 반복과 시연, 이해전략, 시험 준비와 대처 전략, 노력 조절, 동기화, 규칙적인 학습습관, 노트필기 전략, 리포트와 과제 수행 전략 등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들은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들에 비하여 다른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학습전략 중에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학습전략을 포함한 인지적 요인을 다루었거나 정서적 문제를 따로 다루었다. 그러나 상호관련성과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학업 유형의 분류를 고려해 볼 때,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을 다 포함하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적응은 학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대학 교육의 효율성과 대학교육의 경쟁력과도 연결된다.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은 곧바로 교육효과를 감소시키고 이런 학생이 많을수록 그 대학의 경쟁력은 낮아질 것이다. Russell과 Pettie(1992)는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으로 학업, 심리요인, 대인관계, 가족관계, 환경요인, 수업 스트레스 등을 들고 있으며[13], 김은정(1992)은 대학생활 적응의 중요한 요인으로 학업성적을 들고 있다[14].

한편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취는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15]. 학생이 학교에서 긍정적인 생활태도와 생각을 가질 때 학업성취 수준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며[16],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이태상(2010)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17]. 그러나 결국 교육의 목표가 학업 성취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생활 부적응은 학업 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14]. 학업성취도는 교수-학습 활동을 통하여 산출되는 최종적인 결과변인이기에 교육의 과정과 학습자의 적응을 설명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그러므로 학습과정 중에 학습자가 사용하는 학습전략 및 학습자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 주는 부정적 정서, 그리고 대학생의 적응을 모두 고려하여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연구변수들의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학습전략

은 시간관리, 공부환경, 수업태도, 노트필기, 집중전략, 책읽기, 기억전략, 시험 준비의 8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정서는 우울, 짜증, 불안의 3가지 요소로 정의하였고[4], 학교적응은 학업과 관련된 학문적 적응과 인간관계에 관련된 사회적 적응으로 구분하였다[18].

한편, 최인숙(2012)은 청소년들의 부정적 정서나 우울에 대한 성별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으며[25], 구경미와 정현희(2012)는 우울정서와 대인관계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가 남자는 유의했으나 여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26], 박병선과 배성우(2012)는 대인관계가 학교성적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학생은 경로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남학생은 유의하지 않았다는 성별 조절효과를 보고하는 등[27],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관계에서도 성별의 조절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전략과 부정적 정서 및 학교생활 적응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학습전략과 부정적 정서, 학교생활 적응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들의 학습전략과 부정적 정서, 대학에서의 학문적·사회적 적응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학습전략과 부정적 정서, 학업적·사회적 적응이 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대학생의 학습전략과 부정적 정서, 학업적·사회적 적응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한 대학교의 2011학년

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성별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 목적에 따라 남자와 여자의 구성비를 동질하게 편성하기 위해 각각 400명씩 총 8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3개월의 간격을 둔 2차에 걸친 조사와 성적(GPA)까지 모두 완벽하게 조사된 연구 대상자는 총 654명으로 남학생이 325명(49.7%), 여학생이 329명(50.3%)이었고, 평균 연령은 20.24세(SD=1.13)였다. 연구 대상의 계열별 분포는 인문사회계열이 251(38.4%)명, 자연계열 283명(43.3%)명, 예체능계열이 120명(18.3%)이었고, 종교별로는 기독교 262명(40.1%), 천주교 57명(8.7%), 불교 21명(3.2%),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314명(48.0%)이었다.

2. 연구 절차

연구를 위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2011년 3월에 (주)한국가이던스에서 표준화한 학습전략검사를 구매하여 조사하였고, 검사결과는 (주)한국가이던스에서 채점하여 T점수로 제공 받았다. 학습전략검사 후 3개월 뒤 기말고사 전 주인 6월 초에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학습전략검사와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병합한 후 9월에 전산실에 의뢰하여 1학기 성적(GPA)을 입력 받았다. 연구의 윤리적인 면을 고려하기 위해 본 연구와 관련이 없는 전산실 직원이 성적을 입력한 후 학생들의 이름을 제거하고 연구자들에게 회신하여 연구 대상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였다. 설문 조사 시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응답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공지하였다. 이에 동의하는 사람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을 시작한 후에도 중도에 언제든지 설문지 응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조사하였다. 응답시간은 개인차가 있으나 학습전략 검사는 40분 내외, 설문조사는 약 25분 정도 소요되었다.

3. 연구 도구

3.1 학습전략

학습전략은 (주)한국가이던스에서 표준화하여 판매하는 학습전략검사(Multi Learning Strategy Test: MLST)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학습전략검사에서는 학습 행동을 학습 준비단계, 학습 진행단계, 확인 평가단계로 나누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 하위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 준비단계에서는 시간관리, 학습 진행단계에서는 공부환경, 수업태도, 노트필기, 집중전략, 책읽기, 기억전략, 확인 평가단계에서는 시험전략의 총 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전략 점수가 높다는 것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는 모두 OMR에 기록하여 (주)한국가이던스에서 채점 후 T점수로 변환하여 회신된 결과를 활용하였다. 학습전략검사의 요강[4]에 따르면 표준화 당시의 신뢰도(검사-재검사법)는 대상에 따라 .91~.95였고, 학업성취도와외의 예언타당도 검증 등을 통해 타당화 하였다.

3.2 부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는 (주)한국가이던스에서 표준화하여 판매하는 학습전략검사(MLST)에 포함된 정서적 특성을 사용하였다. 정서적 특성은 우울, 짜증, 불안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우울과 짜증은 유사한 경향이 있으나, 학습전략검사의 요강[4]에 따르면 신경질적인 태도와 더불어 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방식의 부정적 감정 표현을 짜증으로 조작적 정의하여 우울과 구분하였다. 검사결과는 (주)한국가이던스에서 채점 후 표준점수인 T점수로 변환하여 회신된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학습전략검사 요강에 나타난 표준화 당시의 신뢰도(검사-재검사법)는 대상에 따라 .88~.90이었다.

3.3 학문적·사회적 적응

학교적응은 학문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으로 세분화하여 조사를 하였다. 학문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의 측정은 김수연(2010)이 사용한 학업적 통합성과 사회적 통합성 문항에서 학업적 적응을 측정하는 8문항과 사회적 적응을 측정하는 6문항을 사용하였다[18]. 학업적 적응의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학교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나는 논리적으로 학교 과제를 작성할 능력이 있다', '나는 이번 학기 수업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렵게 느껴졌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

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적 적응은 대학에서 ‘나는 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과 잘 지낸다’,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원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등의 문항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학업적 적응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4이었으며, 사회적 적응은 .75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된 통계분석은 IBM사의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과 주요 연구 변수들의 백분율과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성별에 따라 Pearson의 적률상관계 분석을 하였고, 주요 연구변수들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성별과 연구변수들의 조절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상호작용 효과의 분석 후 단순기울기 검증은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단순기울기 검증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기울기를 도식화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주요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주요 연구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표 1] 남자의 경우 부정적 정서와 성적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r=-.07$, ns), 여자의 경우 사회적 적응과 성적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r=.02$, ns). 그 외의 다른 주요 변수들의 총합척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하위척도별로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2. 학습전략과 부정적 정서의 하위요인들이 학업적·사회적 적응과 성적에 미치는 영향

학습전략의 8개 요인과 부정적 정서의 3개 요인이 학업적·사회적 적응과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가 [표 2]에 나타나 있다. 학습전략과 부정적 정서에 해당하는 총 11개의 독립변수를 모두 투입한 후 유의한 변수를 단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학업적 적응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 모형의 최종 단계의 설명량은 24.7%였고($R^2=.247$, $F=70.986$, $p<.001$), Durbin-Watson값은 1.98로 나타나 오차항의 독립성을 가정할 수 있었으며, 투입된 독립변

표 1. 학습전략, 부정적 정서, 학업적·사회적 적응 및 성적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N=654)

	(1)	(1-1)	(1-2)	(1-3)	(1-4)	(1-5)	(1-6)	(1-7)	(1-8)	(2)	(2-1)	(2-2)	(2-3)	(3)	(4)	(5)	
(1) 학습 전략		.87***	.68***	.81***	.82***	.72***	.78***	.79***	.83***	-.33***	-.26***	-.37***	-.25***	.50***	.37***	.25***	
(1-1) 시간관리	.87***		.59***	.67***	.68***	.57***	.60***	.60***	.73***	-.19***	-.14*	-.23***	-.12***	.42***	.27***	.23***	
(1-2) 공부환경	.66***	.52***		.43***	.41***	.53***	.36***	.42***	.47***	-.22***	-.16**	-.28***	-.14***	.32***	.18***	.18***	
(1-3) 수업태도	.80***	.70***	.39***		.67***	.53***	.62***	.61***	.60***	-.28***	-.26***	-.34***	-.15***	.44***	.33***	.30***	
(1-4) 노트필기	.81***	.71***	.36***	.71***		.43***	.69***	.65***	.67***	-.14*	-.11*	-.14***	-.11***	.40***	.32***	.22***	
(1-5) 집중전략	.74***	.59***	.57***	.48***	.38***		.41***	.50***	.48***	-.47***	-.37***	-.50***	-.37***	.41***	.31***	.21***	
(1-6) 책임기	.81***	.61***	.40***	.63***	.68***	.50***		.61***	.68***	-.22***	-.19***	-.21***	-.17***	.43***	.33***	.11	
(1-7) 기억전략	.76***	.59***	.41***	.53***	.58***	.53***	.60***		.63***	-.29***	-.23***	-.30***	-.24***	.41***	.31***	.15**	
(1-8) 시험준비	.83***	.69***	.46***	.62***	.67***	.51***	.69***	.57***		-.27***	-.20***	-.29***	-.23***	.32***	.29***	.17***	
(2) 부정적 정서	-.37***	-.21***	-.27***	-.26***	-.20***	-.46***	-.28***	-.38***	-.28***		.91***	.89***	.85***	-.23***	-.33***	-.20***	
(2-1) 우울	-.31***	-.17***	-.21***	-.25***	-.19***	-.35***	-.24***	-.33***	-.24***	.88***		.74***	.65***	-.20***	-.34***	-.20***	
(2-2) 짜증	-.40***	-.24***	-.28***	-.31***	-.22***	-.44***	-.31***	-.36***	-.32***	.86***	.65***		.62***	-.22***	-.29***	-.20***	
(2-3) 불안	-.28***	-.13*	-.23***	-.14*	-.11*	-.42***	-.21***	-.32***	-.19***	.88***	.67***	.63***		-.19***	-.25***	-.14*	
(3) 학업적 적응	.44***	.37***	.24***	.44***	.32***	.37***	.39***	.32***	.32***	-.19***	-.15**	-.18***	-.18***		.30***	.21***	
(4) 사회적 적응	.18***	.10	.06	.16**	.15**	.16**	.23***	.17**	.13*	-.41***	-.38***	-.37***	-.34***	.30***		.02	
(5) 성적(GPA)	.34***	.30***	.26***	.38***	.26***	.20***	.26***	.22***	.26***	-.07	-.09	-.14*	.03	.25***	.13*		
M(SD)	남자 (63.89)	424.95 (11.23)	54.63 (10.10)	51.10 (8.90)	54.43 (9.87)	53.68 (11.12)	54.41 (10.46)	52.59 (9.67)	51.76 (10.04)	52.34 (25.58)	149.65 (9.94)	49.31 (9.37)	49.34 (9.93)	51.00 (4.20)	25.76 (3.49)	22.18 (.65)	3.38
	여자 (64.21)	426.19 (11.52)	53.93 (10.37)	52.48 (8.77)	53.77 (9.64)	53.66 (11.29)	55.92 (9.99)	51.80 (9.83)	52.04 (10.24)	145.00 (25.50)	48.28 (10.00)	47.79 (9.48)	48.93 (9.36)	25.47 (4.07)	22.82 (2.61)	3.60 (.57)	

주. 대각선 좌측은 남자, 대각선 우측은 여자의 상관행렬임.

* $p<.05$, ** $p<.01$, *** $p<.001$

수들의 다중공선성을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로 확인한 결과 모두 1.39~1.8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학업적 적응에는 수업태도($\beta=.24, p<.001$), 집중전략($\beta=.19, p<.01$), 책읽기($\beta=.17, p<.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정서의 하위요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적 적응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의 설명량은 17.5%였고($R^2=.175, F=45.913, p<.001$), Durbin-Watson값은 2.01로 나타나 오차항의 독립성을 가정할 수 있었으며, 투입된 독립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는 1.07~1.99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사회적 적응에는 짜증($\beta=-.23, p<.001$)과 우울($\beta=-.13, p<.01$)의 부정적 정서와 더불어 책읽기($\beta=.18, p<.0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학습전략과 정서가 학업적·사회적 적응 및 성적에 미치는 영향 (N=654)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R^2	F	VIF
학업적 적응	(상수)	12.15		.247	70.986***	
	수업태도	.11	.24***			1.84
	집중전략	.07	.19***			1.39
	책읽기	.07	.17**			1.73
사회적 적응	(상수)	25.20		.175	45.913***	
	짜증	-.10	-.23***			1.95
	책읽기	.06	.18***			1.07
	우울	-.04	-.13***			1.99
성적(GPA)	(상수)	2.08		.117	43.121***	
	수업태도	.02	.28***			1.20
	공부환경	.01	.11**			1.20

p<.01, *p<.001

성적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의 설명량은 11.7%였고($R^2=.117, F=43.121, p<.001$), Durbin-Watson값은 2.07로 나타나 오차항의 독립성을 가정할 수 있었고, 독립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는 1.20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성적에는 수업태도($\beta=.28, p<.001$)와 공부환경($\beta=.11, p<.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정서의 하위요인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3. 학습전략과 부정적 정서, 학업적·사회적 적응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연구 목적의 검증을 위해 위계적(hierarchical)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모형 I에서 학습전략과 부정적 정서, 학업적·사회적 적응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모형 II를 통해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표 3). 성별은 여자는 -1, 남자는 1로 대비코딩하여 가변수(dummy variable)화 하였고, 성별과 연구변수 간 상호작용항은 다중공선성을 줄이기 위해 연구변수들의 평균을 중심으로 중심화(centering)한 후 성별과 곱하여 구성하였다. 상호작용항의 유의성 검정은 위계적 회귀분석의 2단계에 투입하여 검증하였다.

표 3. 학습전략과 정서, 학업적·사회적 적응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N=654)

독립변수	모형 I		모형 II		VIF
	B	β	B	β	
(상수)	2.32		2.28		
성별	-.108	-.17***	-.109	-.18**	1.02
학습전략	.002	.22***	.002	.24***	1.44
부정적 정서	-.001	-.04	-.001	-.02	1.29
학업적 적응	.019	.13**	.018	.13**	1.35
사회적 적응	-.001	-.03	-.005	-.03	1.38
성별×학습전략			.001	.08	1.44
성별×부정적 정서			.003	.12**	1.28
성별×학업적 적응			.001	.01	1.35
성별×사회적 적응			.022	.10*	1.37
R2(ΔR^2)	.126		.146(.020)		
F	18.750***		12.249***		

*p<.05, **p<.01, ***p<.001

연구 변수들만을 투입한 1단계 모형의 설명량은 12.6%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R^2=.126, F=18.750, p<.001$), 성별과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2단계 모형의 설명량은 2.0%($\Delta R^2=.020, F=3.727, p<.01$)가 유의하게 증가한 14.6%로 유의하게 나타났다($R^2=.146, F=12.249, p<.001$). 투입된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분산팽창계수로 확인한 결과 1.02~1.4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으며, Durbin-Watson값도 1.99로 나타나 오차항의 독립성을 가정하였다. 2단계 모형에서 성별($\beta=-.18, p<.001$)과 학습전략($\beta=.24, p<.001$), 학업적 적응

($\beta=.13, p<.01$)은 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부정적 정서($\beta=-.02, ns$)와 사회적 적응($\beta=-.03, ns$)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나, 조절효과 분석에서 성별과 부정적 정서($\beta=.12, p<.01$) 그리고, 성별과 사회적 적응($\beta=.10, p<.05$)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4. 성별에 따른 학습전략, 부정 정서, 학업적·사회적 적응과 성적 간 단순기울기 검증 (N=654)

독립변수	성별	B	SE	절편	t
부정적 정서	남	-.002	.001	3.666	-1.340
	여	-.005	.001	4.259	-3.731***
사회적 적응	남	.024	.010	2.858	2.318*
	여	.005	.012	3.474	.451

* $p<.05$, *** $p<.001$

성별과 부정적 정서 및 사회적 적응 간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성별에 따라 부정적 정서와 사회적 적응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별에 따른 독립변수들의 기울기(회귀계수)의 유의한 차이를 의미하므로,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성별에 따라 독립변수들의 단순기울기 분석을 회귀분석으로 수행하였다[표 4].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던 부정적 정서는 남자의 단순기울기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반면($B=-.002, ns$), 여자는 부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B=-.005, p<.001$), 여자 집단의 경우 부정적 정서의 증가는 성적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적응에서는 남자의 회귀계수가 정적으로 유의하여($B=.024, p<.05$) 사회적 적응이 높을수록 성적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의 경우 사회적 적응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B=.005, ns$). 성별 부정적 정서와 사회적 적응의 기울기를 도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단순기울기 검증의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평균 ± 1 표준편차에 해당하는 값을 대입한 후 성적의 추정치를 산출하여 [그림 1]과 [그림 2]에 기울기의 도식을 제시하였다. [그림 1]의 부정적 정서와 성적 간의 관계에서 여자의 기울기가 더 부정적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림 2]의 사회적 적응과 성적 간의 관계에서는 남자의 기울기가 더 정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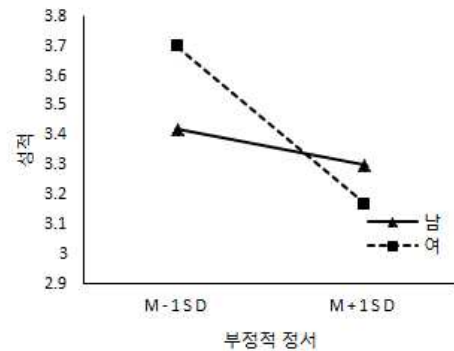


그림 1. 부정적 정서와 성적 간 성별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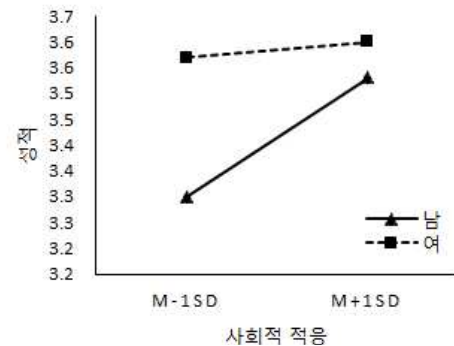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적 적응과 성적 간 성별의 조절효과

IV. 논의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들의 학습전략과 부정적 정서, 대학생활적응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전략과 부정적 정서, 학업적·사회적 적응은 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전략과 성적 간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학습전략의 하위요인들은 주로 학업적 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성적과도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는 양명희와 이경아(2012)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중단연구 5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연구한 결과[19], 자기조절학습의 상위 그룹이 학업성취도가 더 높고, 평균성장률도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

를 고려해 볼 때, 대학 환경에서도 자기주도적 학습전략이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습 전략 중 수업태도와 책읽기, 집중전략은 학기말에 측정한 학업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신입생들이 대학의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갖추어야 할 학습전략 영역임을 시사한다. 수업태도와 집중전략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20],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수많은 지식이 넘쳐나는 요즘 제한된 시간에 많은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책읽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Pokey와 Blumenfeld(1990)의 학습전략이 대학생의 기하성적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라는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21]. 수업태도와 공부환경은 성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에서의 학업적 성취에 수업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전략의 책읽기 전략은 학업적 적응뿐만 아니라 사회적 적응에도 우울 및 짜증과 더불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책읽기 전략이 단순히 학업적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Onwuegbuzie, Slate와 Schwartz(2001)는 연구방법론을 수강하는 대학원생 122명을 대상으로 학습습관 검사를 사용하여 학업성취도를 측정한 결과[22], 높은 학업성취 학생들은 낮은 학업성취 학생보다 미리 읽기를 해놓고, 규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독서훈련은 학업적 성취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정서는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에 모두 부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특히 하위요인인 우울과 짜증은 사회적 적응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우울과 짜증은 큰 범주에서 우울로 해석할 수 있으며[5], 대학생활에서의 우울은 적응 및 성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살사고와 중독 등 여러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대학생의 학습전략과 부정적 정서, 학업적·사회적 적응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습전략과 학문적 적응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조절효과가 없었으나, 부정적 정서와 사회적 적응은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습전략이 성별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높은 학업성취 학생은 낮은 학업성취 대학생에 비해 학습전략의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는 전명남(2003)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12]. 또한 학업적 적응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우울, 불안, 짜증과 같은 부정적 정서들은 성별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여학생들의 부정적 정서는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난 반면, 남학생들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이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된 증상을 지닌 학습자들은 학업수행이나 기억, 집중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장기적인 학업성취에 곤란이 유발된다. 학습자가 우울하거나 불안한 경우 학업 기술 습득과 정보의 기억에 기여하는 인지과정이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정서를 파악하는 것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남학생들의 경우 대학생활에서 교류하는 대인관계의 적응에 해당하는 사회적 적응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나, 여학생을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남자들은 개인의 부정적 정서보다 교우관계와 같은 사회적 적응요인이 성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여학생들은 사회적 관계보다는 개인의 부정적 정서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개인 내적 정서와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성별 조절효과가 나타난 점은 추후 대학생들의 학업지도에 충분히 활용할만한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첫째, 학습전략이 학업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업태도와 책읽기, 집중전략의 영향력이 유의하므로 학교 장면에서 학생들의 학교적응과 학습증진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전략의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그 한 예로 학생들의 적응과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 대학들에 설립된 교수학습개발센터(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CTL)와 같은 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업수행에 있어 이러한 학습전략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에 대한 교육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신입생들의 학습전략을 측정하고 개인들의 학습전략의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지도 교수의 개인 상담이 학기 초에 조속히 진행되어야 첫 학기에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특히 대학의 학사 경고자의 1학년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 등을 고려할 때[18], 신입생에 대한 적절한 학습전략의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적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이 다르다. 이는 정서상태가 인지기능의 효율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정서적으로 교란된 상태에서는 집중력상의 어려움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잠재된 학습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학업성적도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따라서 적응과 학업성적에 대하여 남·녀 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 기간이 1학기로 단기간의 연구였다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학습전략 검사 후 장기간이 지난 후에 성적을 분석할 경우 학습전략의 변화 등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적절히 통제하여 추후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종단적으로 성적의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활 적응도의 측정 영역이 매우 넓으므로 더욱 다양한 변수로 측정하여 학습전략의 영향을 다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적응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만을 평가하였으나, 보다 세분화하여 전공 영역, 대학 만족도 등 성적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과의 후속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J. E. Ormrod, *Human Learning: Theories, principles, and educational applications*, New York: Macmillan, 1990.
- [2] 주영아, 김영혜, 원수경. “학사경고 여대생의 학업성취 실패 및 지속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청소년 복지연구*, 제14권, 제4호, pp.47-60, 2012.
- [3] 이해리, “대학생의 학업 및 심리적 적응에 관한 추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54권, pp.115-139, 2009.
- [4] 류관열, 엄우용, 최성열, “중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타인기대와 학업성취도 관계에서 자기조절 학습전략의 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5호, pp.171-192, 2010.
- [5] 박동혁, *MLST를 통한 학습문제의 진단과 시간관리 지도법*, 서울: ㈜가이던스, 2010.
- [6] 황매향, “학업문제 유형분류의 탐색”, *상담학연구*, 제10권, 제1호, pp.561-581, 2009.
- [7] 서병완, *학습부진아의 유형분석과 상담모형개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3.
- [8] 김창대, 이정운, 임영선, 남상인, *청소년문제유형분류체계: 기초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1994.
- [9] 김태성, 김형수, 이영선, 박정민, 임은미, *WEB을 활용한 청소년 심리검사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2001.
- [10] 신을진, *학습목표실천과정의 방해요소분석: 고등학생의 공부계획 실천과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 [11] 홍경자, 김창대, 박경애, 장미경, *청소년집단상담의 운영*,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2002.
- [12] 전명남, “높은 학업성취 대학생의 학습전략과 수행 분석”, *교육심리연구*, 제17권, 제4호, pp.1-28, 2003.
- [13] R. K. Russell and T. A. Pettie, “Academic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Assessment and counseling”, In S. D. Brown & R. W. Lent. (Ed.),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pp.485-512, New York: Wiley, 1992.

[14] 김은정, “대학생들의 학업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연세상담연구, 제8권, pp.85-114, 1992.

[15] 권재환, 김경희,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제35권, pp.32-58, 2013.

[16] 김명희, 하정희, “학습동기와 학습기술이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중학생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제17권, 제2호, pp.33-48, 2008.

[17] 이태상, “학교유형별 중학생의 학습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관계 탐색”, 학습자중심교과연구, 제10권, 제3호, pp.373-388, 2010.

[18] 김수연, *재학생 중도탈락 보고서*. 서울: 삼육대학교 출판부, 2010.

[19] 양명희, 이경아,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도의 관련성: 변화추이 및 인과적 방향성 검토”, 교육과학연구, 제43권, 제2호, pp.175-195, 2012.

[20] 권혁일, 박순희, “시각장애 학생과 일반학생의 영어 학습태도, 학습전략 및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12권, 제4호, pp.187-210, 2011.

[21] P. Pokay and P. C. Blumenfeld, “Predicting achievement early and late in the semester: The role of motivation and use of learning strateg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82, pp.41-50, 1990.

[22] A. J. Onwuegbuzie, J. R. Slate, and R. A. Schwartz, “Role of study skills in graduate-level educational research cours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94, No.4, pp.238-246, 2001.

[23] 이혜순, 옥지원, “청소년의 충동성, 자아존중감, 우울수준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호, pp.438-446, 2012.

[24] 문영주, 최현숙,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있어 정서적 조절 능력의 조절효과”, 사회복지

연구, 제38권, pp.353-379, 2008.

[25] 최인숙, “성별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우울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정서경험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1호, pp.135-160, 2012.

[26] 구경미, 정현희,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동적 사고,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와 성별에 따른 경로 차이 분석”, 상담학연구, 제13권, 제3호, pp.1295-1314, 2012.

[27] 박병선, 배성우, “대인관계와 학교성적이 학교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학교급별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제3호, pp.215-238, 2012.

저자 소개

박완성(Wan-Sung Park)

정희원



- 1986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 1991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석사)
- 2003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03년 9월 ~ 현재 : 삼육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관심분야> : 개인차 이론, 교수-학습방법, 교육심리, 진로상담, 진로교육

정구철(Goo-Churl Jeong)

정희원



- 2002년 2월 : 연세대학교 심리학(문학사)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사이버커뮤니케이션, 심리학, 교육